

‘탄소발자국 검증’ 해외서도 통한다 수출기업, 비용·시간 대폭절감 기대

KOLAS·IAF, 상호인정협정 체결
해외 협력 네트워크로 효율성 강화
검증 국제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국내 인정기관의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전망이다. 수출기업들의 해외 인증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한국인정기구(KOLAS)가 국제인정기구포럼(IAF)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EU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다.

KOLAS는 지난해 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번 IAF와의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카본 트러스트 물·탄소 발자국 인증 로고.



/뉴시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KTR, KTL, KTC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된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IAF는 온실가스 검증과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등의 분야 세계 최대 국

제기구로, 올해 8월 기준 100개국 86개 인정기구가 가입해 있으며, 각국 발행 검증서 등 상호 통용을 통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MLA를 운영하고 있다.

진중욱 국표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재생원료 확대로 순환경제 전환 박차”

환경부, 순환경제 이니셔티브 출범
재활용 확대 위한 ‘민관 공동’ 노력
재생원료 활성화·기술지원 기반 구축

정부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 및 해외 산업협체 등과 손을 맞잡는다. 민간 부문의 코카콜라와 아모레퍼시픽, SK케미칼, LG화학, 올리브영 등을 비롯해 해외의 세계경제포럼, 앨런맥아더재단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력체계인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니셔티브’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새로 마련한 계획)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추진된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모든 주기를 망라하는 긴밀한 순환경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발족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위원장이 참석한다. 또 플라스틱 산업을 대표하는 14개 기업, 4개



국내의 한 커피 매장에 사용한 플라스틱 컵과 빨대가 놓여 있다.

/뉴시스

협회·단체 대표, 해외 산업협체의 3곳 관계자도 합류한다.

발족식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과 의지를 담은 이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관리를 위해 ▲ 재생원료 사용 국가 목표 달성 노력 ▲ 재사용 등 플라스틱 감량행동 강화 ▲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 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지원 ▲ 국제사회와 협력 창구 구축 등 정부 및 산업계의 공동

역할 등이 담겼다.

아울러, 앨런맥아더재단이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순환경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이번 이니셔티브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연차별 재생원료 활성화 ▲재사용 및 되채우기 거점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 등 기업의 창의적 해법을 활용한 순환경제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동향에 맞추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의 운영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 우수 사례 등을 국제기구 및 해외 산업협체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이행의 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기업의 혁신과 국제사회의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부가 순환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각양각색’ 캠페인, 韓PR대상서 최우수상

농식품부, 소통 중심 정책 홍보 주목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의 한국PR대상’ 정부 부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24일 올 한 해에 걸쳐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 <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각색>이 지난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각양각색 캠페인’은 MZ세대에게 농업·농촌이 다양한 스펙을 쌓으며 각자 개성에 맞는 각양각색의 ‘각색’을 살 수 있는 삶터이자 일터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각색’이란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生)을 결합한 MZ세대 신조어로 하루하루 본인이 뜻한 바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삶을 의미한다.

실제로 농업·농촌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출연해 본인들의 성공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제작됐다. 또 청년세대에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농업·농촌 스타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PR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의 전한영 대변인(오른쪽)이 참석했다.

/농식품부

트업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해보는 콘텐츠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진로를 고민하는 실제 대학생들에게 한 달간 농업·농촌 스타트업에서 인턴십 기회를 부여(5개 업체에서 20명)해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이같이 체감도 높은 캠페인을 지원해 청년세대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호평을 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코트라, 인도서 K-팝·김치 알리기 성공

한-인도 수교 50주년 ‘코인텍스’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난 21~23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전시장에서 첫 개최한 ‘2024 대한민국산업전시회(코인텍스)’가 참가객 1만4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코인텍스는 인도 최초로 한국 기업이 주최, 주관해 열렸으며 양국 기업 280개사, 약 600개 부스가 운영되는 등 인도 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경기도 기업 114개사가 참여했고,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최신 기술 및 제품 시연으로 현지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는 양국 주요 경제인 500여명이 참석해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 공동 번영

의 길을 논의했다. 또 IR 챌린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기업 MOU 협약, K-팝 콘서트 결승전과 김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인도 현지에 한국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인도와 서남아 지역 바이어 3600개사가 참가기업 부스를 방문, 약 5000건 이상, 수출상당액 기준 총 4억 5000만달러 규모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향후 수출 계약 추진시 1억4000만 달러 이상 성과가 기대된다.

빈준화코트라서남아지역본부장은 “인도에서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산업 전시회에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지역의 핵심 바이어들을 대거 유치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사우스 핵심지역인 인도에서 우리 기업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어촌 미래 위한 대전환 논의

27일까지 제주도 ‘세계어촌대회’ 개최

해양수산부가 이달 24~27일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30개국 내외의 정부 및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인다.

세계어촌대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창설됐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재해 취약성 등 전 세계 어촌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다루는 등 연례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으로 나뉜다. 각 세션에서 국내외 어촌당국과 전문가들

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논의 내용은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다. 또 정부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크 행사,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어촌의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